

이슈 진단 | '9시 등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贊 “건강 챙기고 수업 집중” 反 “자율성 침해·학력 저하”

“충분한 수면과 식사로 건강을 챙기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학습시간 단축으로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교육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등교시간 조정'을 공식화하면서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을 붙였다. 특히 경기도 이어 광주·전북·제주·강원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9시 등교' 동참을 밝힌 데 이어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9시 등교'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들은 “학생의 잠과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 ‘아침이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7일 광주지역교장단협의회 회장단과 만찬을 하며, '등교시간 조정'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조만간 교장단협의회를 통해 초·중·고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장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교육청의 '9시 등교, 9시20분 1교시'안, 강원교육청의 '9시 1교시'안, 전북교육청의 '등교시간 30분가량 늦추기'안 등 구체적인 시안

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여론을 듣겠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등교시간을 늦춰 '아침이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광주지역은 장항국 교육감 취임 후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초·중학교는 8시30분 전후, 고교 1·2학년은 8시, 3학년은 7시40분에 등교하고 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먼저 등교해 아침 자율학습을 하거나 EBS방송 시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력 저하와 교육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고교 학부모, 교원들은 학교 실정을 배제한 획일적인 9시 등교에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많은 혼란과 반대여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담합 정책’”이라며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고교 교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등교시간을 늦춰도 수업 시작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고교생 특히 3학년의 경우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찬반토론 3면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산강변 '역새 물결'

아침, 저력으로 서늘한 기운이 이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17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역새와 코스모스가 만개한 광주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을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돌아온 박영선 “돌 맞을 각오로 黨 혁신”

비대위원장 사퇴키로

새정치 내홍 수습국면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 당을 집권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혁신해 보고자 호소해왔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면서 “이런 상황에 당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 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선후배 동료의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난 11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의사 표시로 촉발된 당의 내홍은 이로써 엿새 만에 수습 국면을 맞았다.

박 위원장은 당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당이 백정간두에 처했다”며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

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꾸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많이 부족한 제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드리는 애절한 호소다.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라. 그 돌을 제가 맞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전·현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8일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다.비대위원장 후보가 의원총회 등의 추진 절차를 통과하면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쌀 관세율 513% 책정

오늘 당정협의를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고율 관세가 부과

되면 국내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 부과시 국내산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형뉴스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내달 1일 출범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다음달 1일 운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만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칭)'를 출범하기로 했으며, 15개 상생 과제 중 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7일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양 시·도 실·국장 등 상생협력 실무위원 22명이 모여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상생협력과제, 광주·전남 상생협약 체결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신(新)영산강시대 광주·전남 상생발전정책 수립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제2 남도고속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발전연구원 및 전남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시·도실무위원회 합의

7개 과제 우선 추진키로

등 7대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실무위원 회의 과정에서 추가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 협력 ▲영산강 재자연화(북원) 추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인근 에너지밸리 추진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 및 창조사업 ▲공공의 국제화 추진 ▲유라시아철도 호남축 연계 공동협력방안 ▲영

산강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호남권 과학문화 진흥허브기관 설립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출범일을 다음달 1일로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5일까지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의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강신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상생발전위원회는 한 뿌리 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이 상호협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령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워진 한울 율령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피부결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윤기가 나뉘어 햇빛 아래 보이는 빛깔다	99%	한결 맑아진 느낌이다	99%
단백이 자랄라 탄력해진 느낌이다	98%		

*100명 여성이 1주일 동안 피부 개선 효과 측정 결과

한울

율령원액